

## 110 학년도 1 학기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 (16)

주제: 미토 도쿠가와가(水戸徳川家)의 문교 사업: 동아시아 문명 발전 중심으로

제 16 회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에서는 도쿠가와(徳川) 박물관 도쿠가와 마키(徳川真木) 관장을 특별 초청하여 「미토 도쿠가와가(水戸徳川家)의 문교 사업- 동아시아 문명 발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도쿠가와(徳川) 관장은 이번 강의를 대만에서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19 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안타깝다고 하였다.

도쿠가와(徳川) 관장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관장과 박물관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설명하였다. 지난 2년 동안 줄곧 선조들이 물려준 미토 도쿠가와(水戸徳川) 가문의 산림 관리와 정비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하였다. 오늘날 전 세계가 숲의 중요성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양의 벌목이 전 세계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손자인 미쓰쿠니(光圀)는 「산림을 가신(家臣)들의 상(獎勵)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는 가신(家臣)이 돈을 위해 나무를 베어 지역 환경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으며 불법 산림 벌목에 따른 지구 온난화를 예견한 듯하다. 조상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조상 대대로 대를 잇는 세도(世道)가 잊혀지지 않는 세상이었다. 다시 말해 가족 단위 승계는 일본, 대만 등 아시아의 공통된 특징이다.

관장은 먼저 닛코 도쇼구(日光東照宮) 사진을 보여주었다. 도쇼구(東照宮)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사당이다. 일본에서는 위인을 종교적으로 신격화한다. 관장은 이어서 도쿠가와(徳川)의 가보를 보여주고 소개하였다. 도쿠가와 고산케(徳川御三家)는 오와리(尾張), 기슈(紀州), 미토(水戸)를 가리키는 것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家康)의 세 아들이 계승하였으며 전쟁 없이 이 지역을 통치하였다. 무력이 아닌 기술과 지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자 이에야스(家康)는 아들들에게 학문을 배우게 하였다. 또한 이에야스(家康)는 하야시 라잔(林羅山)을 만나 유가사상을 접하게 되고 경전을 소장하고 보호하는 데 힘썼다. 유학이 중용됐다는 사실도 동아시아 공통점이다.

관장은 박물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다. 도쿠가와(徳川) 박물관은 제 13대 미토 구니유키(水戸圀順)가 설립한 공익 재단 법인이며 「창왕고래(彰往考來)」 과거를 드러내고 미래를 생각하라는 기본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伝)>의 한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제 1 세대 미토 도쿠가와가(水戸徳川家) 요리후사(頼房)는 하야시 라잔(林羅山) 등의 유가학자들과 왕래할 뿐만 아니라 신도(神道)를 배웠으며 일본 각지에서 새로운 인력자원을 끌어 모았다.

요리후사(頼房)의 3남 미쓰쿠니(光圀)는 백성을 이끌기 위해 정치에 열중한 유명한 인물이다. 또한 출판 사업에도 전념을 다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249년 동안 총

397 권으로 편찬된 <대일본사(大日本史)>이다. 이 역사서는 민간에 산재한 고대 문헌과 사료(史料)를 수집해 여러 학자들이 고증을 거듭하면서 완성되었다. 이 외 도쿠가와(德川) 관장은 미쓰쿠니(光圀)가 10 천황의 지위 아래 궁중 의식과 사건을 다룬 <예의류전(禮儀類典)>, 인민의 질병과 상처를 위해 편찬한 <구민묘약(救民妙藥)>을 소개하였다. 「구민묘약(救民妙藥)」은 미쓰쿠니(光圀)가 목판으로 찍어내어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

미토학(水戸學)은 미토 도쿠가와(水戸德川家) 가문에서 형성된 학술·사상 체계로 내용이 광범위하며 유학(儒學), 신도(神道), 국학(國學)이 융합되어 있다. 도쿠가와(德川) 관장은 다음 세 시기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하였다. 첫째, 전기 미토학(前期水戸學) 시기이다. 미쓰쿠니(光圀)의 <대일본사(大日本史)> 편찬에 따라 건립되었으며 유가학자 사사키 무네아즈(佐佐木宗淳), 아사카 탄(安積澹)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 중기 미토학(中期水戸學) 시기이다. 18세기경 요규 소라이(荻生徂徠)의 학문이 도입되어 융성하였다. 셋째, 미토학 후기(水戸學後期) 시기이다. 19세기 외국 선박의 위협에 대한 위기감이 국정과 관련된 논의를 촉발시켰다.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정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중심 인물로 후지타 도코(藤田東湖) 등이 있다.

도쿠가와(德川) 관장은 미토학(水戸學)의 특색은 책의 편찬과 출판 업무 사업이며 이를 위해 재능 있는 학자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강조하였다. 즉 미토학(水戸學)은 사람 중심의 학문이다.

도쿠가와(德川) 관장은 ‘우메자토 센세에 묘(梅里先生碑), 니시야마 고텍(西山御殿), 고젠다(御前田), 미토 도쿠가와가(水戸德川家) 묘지 지도, 주순수(朱舜水) 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도쿠가와(德川) 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재 세상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이 등장하고 있어 전통적인 생각이 통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림 경영은 남겨야 할 것을 남기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미토(水戸)의 역사에서 알 수 있다. 우리는 인력자원 개발과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시아에는 가정, 조상, 자손을 중요시 하는 정신과 유산이 있으며 대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신이 있다. 따라서 대만인들이 미래를 만드는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